

國際化時代의 韓國海外直接投資戰略에 關한 研究  
The Korea's Strategy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ternationalization Era

崔宗洙·金憲鍾  
by Jong-Soo Choi, Hun-Jong Kim

## 目 次

1. 一般的 性格과 範圍
2. 問題의 提起
  - 1) 進出動機
  - 2) 海外直接投資의 必要性
  - 3) 海外直接投資의 方法
  - 4) 海外直接投資의 類型
3.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과 戰略
  - 1) 今後의 展望과 問題點
  - 2) 韓國海外直接投資戰略
    - (1) 企業側面에서의 海外投資戰略
    - (2) 政府側面에서의 海外投資戰略
4. 結言

## 1. 一般的 性格과 範圍

國家나 地域單位別로 서로 다른 經營戰略을 갖는게 普通이다. 이에 반해 國籍없는 經營은 世界를 하나의 동일시장으로 보고 標準화된 商品을 開發하여 統合마케팅 戰略을 구사한다. 90年代 들어 글로벌화가 深化되면서 世界各國 消費者들의 商品嗜好가 漸次 같아지고 있다.

各國市場이 하나로 수렴되는 市場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한층 빨라지고 있어 國籍없는 經營與件이 造成되고 있으며, 經濟의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는 一般的으로 國際間 商品 및 生産要素의 移動이 增大됨으로 인해 國民經濟 相互間의 經濟的 相互依存性이 擴大되어 가는 過程으로 把握되고 있다. 그러나 國民經濟 相互間의 經濟的 相互依存性은 國家와 時代에 따라 그 動機, 形態 및 性格 등에서 差異가 있으므로 國際化問題에 대한 分析視角도 논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經濟的 國際化란 각 國民經濟간의 經濟的 相互依存性이 增大함으로써 各國 經濟는 相互 精神의으로 統合되며 國民經濟는 國際經濟의 一部로 變形되어 가는 過程이라 할 수 있다<sup>1)</sup>. 各國經濟가 相互依存의 바탕 위에서 國際經濟圈域으로 吸收, 統合되면 國家單位의 經濟的 國境은 瓦解 되거나 그 機能의 縮小이 불가피하게 되며, 그 代身 國際的으로는 새로운 秩序와 規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國民經濟의 相互依存의 접근을 통해 國境概念이 稀薄하게 되고 國際間에 새로운 經濟秩序와 새로운 國際的 經濟規範이 形成되는 過程을 國際化過程으로 理解할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이전의 國際間 相互依存關係는 特定地域이나 特定國家間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더욱이 그것은 各國 固有의 排他的 國境을 固守한다는 前提下에서 展開되었던 現象이다. 따라서 現在와 같은 經濟的 國境概念이 크게 瓦解되고 國際的 規模의 새로운 經濟秩序가 樹立되어야 할 만큼 全面的인 貿易依存關係가 深化되기 始作한 것은 2차大戰 以後부터라 할 수 있다.

貿易과 經濟協力을 통한 國際間的 相互依存性은 19世紀 블럭經濟圈의 形成이나 그 以前부터 展開되었던 國際間 通商條約 등을 통해서도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2차대전 이후 GATT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貿易自由化措置와 開放經濟政策으로 인해 상품 및 生産 要素의 국제간 이동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각국 경제는 生産과 무역의 양면에서 모두 상호의존적으로 발전해 왔다. 더욱이 1960년대 이후부터는 多國籍企業에 의한 生産 및 市場의 국제적 결합이 피해지면서부터 經濟의 국제화과정은 급속히 전개되고 있으며 실제, 19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를 통해서 볼 때 세계무역의 신장률은 산출고 증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1) Destanne de Bernis, Relations Economiques Internationales, Economica, Paris, 1979, p.23.

GDP에 대한 輸出入의 비중도 계속 증대되어 옴으로써 경제의 국제화 과정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분명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각국의 生産, 消費 및 雇傭水準은 상호의존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국민경제내의 경제운영질서 및 국별 경제정책은 외국 혹은 해외시장의 정책 변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각국 경제는 국제적 경제질서와 國際的 經濟規範속으로 상호접근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각국의 경제가 국제화과정을 밟아 오게 된 배경에는 관세인하에 의한 貿易의 自由化, 經濟成長, 技術進步 및 多國籍企業의 대두와 같은 무역촉진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GATT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다자간 貿易協商과 그로 인한 주요 무역국 關稅一括引下措置 및 IMF 體制下의 外換統制와 措置 등은 상품 및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는 직접적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戰後 세계경제가 시현한 고율의 경제성장은 국제간 투입수입재의 수요와 소득탄력성이 높은 내구소비재의 수입요소를 높임으로써 재화의 국제적 이동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또한 기술진보는 국제간 기존의 비교우위 구조를 변화시키고 국제간 기술격차를 유발함으로써 국제무역을 다시금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지 다국적기업은 자체내의 국제적 영업활동망을 통해 국제간 수출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현지생산 및 범세계적 판매활동을 통해 재화는 물론 생산요소 및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국제화는 주로 시장, 생산, 자본 및 노동의 국제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시장의 국제화는 무역확대를 통한 수출입의 상호의존관계로 나타나며, 이것은 세계적 규모의 무역증진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에 의한 지역적 시장통합을 통해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생산의 국제화는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생산자본의 국제적 이동 및 다국적기업의 현지생산 활동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자본의 국제화는 생산의 국제화의 일환으로 전개되기도 하나 오늘날과 같이 다국적은행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생산자본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면에서도 일반의 국제적 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의 국제화는 금융의 국제화로 간주 되기도 한다<sup>2)</sup>. 노동의 국제화는 노동자의 국적, 기술, 언어, 생활관습 등으로 인해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일어 나고 있다. 이들 제한상 가운데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국민경제의 국제적 확산을 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의 국제화와 생산의 국제화라 할 수 있다. 경제의 국제화는 이와 같이 그 동기나 진행형태면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기와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경

2) Paris대학의 C.A. Michalet 교수는 생산 및 금융의 국제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변화과정을 관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자본의 국제화에 의한 생산조직의 국제적 확산과 다국적은행에 의한 금융의 국제화로 인해 오늘날 자본주의는 국가 자본주의에서 세계자본주의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cf. C.A. Michalet, *Banques Multinationales, Firms Multinationales et Economie Mondiale*, C.R.E.S., Universite de Paris X, Nanterre, France, 1981.

계의 국제화가 진행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국제화의 논리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國際化가 추진됨으로 인해 일국단위의 독립적 정책영역이 붕괴되고 각국은 하나의 단일 국제경제질서가 작용하는 공동의 국제경제권으로 집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경제권으로서 접근은— 그것이 범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든 지역적 규모로 이루어지든— 경제적 국제장벽이 완화되고 복수국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필연적 현상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國際化的 論理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개념은 다른 형태의 국제경제활동에 대한 相對的인 概念으로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이러한 개념정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는, 經濟學者들의 傳統的 見解로서, 해외직접투자를 국제자본이동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國際間接投資(international indirect investment) 내지 國際포트폴리오投資(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국제자본이동은 통상 短期資本移動과 長期資本移動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다시 間接投資와 直接投資로 구분된다. 「間接投資」는 배당 또는 이자 등의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자산의 유리한 운용을 위한 투자임에 대하여, 「直接投資」는 이같은 자산의 유리한 운용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기업경영에 직접 참가하여 企業經營上의 運營權 내지 統制權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國際間接投資와 海外直接投資의 구분은 결국 「企業의 運營權 내지 統制權」의 행사 및 수반여부에 의해 결정된다<sup>3)</sup>.

둘째로는, 최근에 이르러 國際經營을 연구하는 입장에서의 관점으로서, 해외직접투자를 單一生產要素의 移轉 또는 輸出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자본의 이동·기술의 이전 또는 licensing 등과 같은 「單純한 生產要素의 移動」이 단일의 생산요소를 독립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임에 대하여 FDI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海外直接投資理論」과 「多國籍企業理論」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

3) 이러한 관점에서의 해외직접투자정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 일국가의 거주자가 실질적 통제권(effective control)을 갖는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G. Ragazzi, 1973. p. 223.)

2 단순한 포트폴리오투자와는 달리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자본투자

(S. H. Robock, 1977. p. 37.)

3 경영적 통제권(managerial control)을 가지는 해외기업에 대한 장기지분투자(long-term equity investment)(F. Root, 1978. P. 509.)

4 해외기업의 경영과 이익에 대한 통제권(control over mangement and profits)을 주목적으로하는 자본이동(K. Kojima, 1978, p. 57.)

5 경영권 즉 기업경영상의 컨트롤을 수반한 자본이동(小島 清, 1981, p. 83.)

역시 혼동되어져 해외직접투자이론이 곧 다국적기업이론인 것으로 취급되어져 왔다. 이렇게 양자가 동일시되어 온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1) 전술한 대로 海外直接投資와 多國籍企業 그 자체가 동일시 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다.

(2) 이론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의 구별은 가능하나 실제로 이를 엄격히 구별하기란 容易하지도 않으며 또한 구별의 實益도 크게 없다.

(3) 연구역사의 일천으로 理論發展의 水準이 아직 미흡하다.

(4) 다국적기업은 국제자본이동이라는 直接投資의 측면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경영 관리라는 國際經營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데, 이들 중 다국적기업을 경제적·이론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經濟學的 觀點에서 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前者인 바며 이를 떠난 고유의 문제란 대부분이 企業經營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多國籍企業의 經濟理論的 研究가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研究로 대신됨은 크게 무리가 아니다. 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를 「활동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후자가 전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하지만 전부인 것은 아닌 반면에, 양자의 「활동주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海外直接投資가 다국적기업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海外直接投資理論이 곧 多國籍企業理論이 될 수는 없다.

海外直接投資는 대체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업 이외의 經濟主體(economic agent)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업 그 자체를 지칭하는 多國籍企業과는 구별된다. 말하자면 海外直接投資가 하나의 行爲(act)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多國籍企業이란 이러한 투자 행위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하나의 制度·組織(institution/ organization)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海外直接投資는 투자기업에 의해 소유된 해외자산의 자본만을 포괄할 뿐이나 多國籍企業이란 그같은 자본 이외에 그에 수반된 技術移轉·經營·서비스·기업가정신 등과 같은 諸經營資源(management resources)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는 투자기업에 의해 소유된 자본만을 포괄하고 있을 뿐 多國籍企業의 통제하에 있는 資產(controlled asset)의 크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해외직접투자가 다국적기업활동 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으나 多國籍企業의 活動 중에는 해외직접투자활동 이외에 수출·라이선싱·간접투자 등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되므로 海外直接投資로서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多國籍企業은 해외직접투자를 행하는 기업이지만 海外直接投資를 행하는 기업이 바로 다국적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본질적 차이점 때문에 海外直接投資는 자본의 제공이나 투자의 문제에 국한되어지나, 多國籍企業은 이들과 직접 관련되어지지 않는 시장전략·업무전략·대 현지정부관계 등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시 된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가 주로 기업행동 중의 經濟的 側面이 강조됨에 반하여, 多國籍企業의 경우는 그러한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政治的·法律的·社會文化的 側面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海外直接投資는 자국내의 제생산요소들(자본·기술·경영능력)을 결합하여 하나의 一 切(package/bundle)로서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또한 「輸出」(exporting)은 자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임에 대하여, 海外直接投資는 자국내 생산요소들의 결합을 해외로 이전시켜 다시 해외에서의 생산요소들과의 일체를 통해 현지에서의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을 행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어쨌든 이러한 구분은 결국 海外事業活動을 행함에 있어서의 代案的 形態(alternative forms)가 무엇이나 또는 해외로 이전되는 이전대상이 무엇이나 하는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정의하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한편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와 多國籍企業(multinational enterprise)과의 관계에서 이 양자는 흔히 同義語로 사용되거나 동일시 되기도 한다. 이같이 양자가 동일시되거나 동일시 될 수 있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海外直接投資의 개념은 거의 통일적으로 정의되나 多國籍企業의 개념은 아직 통일적·보편적으로 엄밀히 확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論者에 따라서는 양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2) 多國籍企業이라는 실체가 海外直接投資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여 그 세포 속에서 성장한 산물이다.

(3) 多國籍企業의 투자방식이 주로 海外直接投資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후자가 전자의 활동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므로 이 양자의 영역이 크게 중복된다.

이같이 海外直接投資와 多國籍企業의 영역이 크게 중복되고 있고 따라서 양자가 동일시 되기도 하지만, 이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양자는 구별되며 또 구별되어야 한다.

## 2. 問題의 提起

90年代의 世界貿易環境은 先進國의 安定成長政策追求, 産油國을 포함한 資源保有國의 資源내셔널리즘 強化, 開途國과 中共 等 社會主義國家의 국제무대 進出 等으로 복잡다난하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기업이 자사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힘의 기반도 없이 무모하게 해외로 진출하려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생존능력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우리나라가 이와같이 어려운 국제무역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에 의한 무역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수출시장의 편중을 지양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명제라 하겠다. 특히 높은 관세장벽과 엄격한 비관세장벽, 선진국의 경기변동이나 수입규제에 따른 영향을 극소화하고 냉각

되는 중동경기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한 70년대 중반 이래 거의 모든 진출이 미·일 등 선진국과 중동지역에만 편중되어 지역적으로 과대의존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출지역의 다변화 노력을 더욱 강화 해야한다. 이 글은 기업의 해외진출의 문제점과 동기, 투자선의 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진출동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개발도상국중심의 투자구조만이 아니다. 동기상의 특징이 다양한 바 보통 들 수 있는 진출동기는 다음과 같다<sup>4)</sup>.

1) 수출시장방위형동기 : 수출상대국이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취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상실되려고 할 때, 상대국에 직접투자를 하여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2) 노동력지향형동기 : 국내의 코스트 인플레이션으로 자국의 국제경쟁력이 저하하였을 때 인근의 제국에 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구하여 진출하는 것으로 노동집약적 업종에 많다.

3) 자원지향형동기 : 세계적인 자원부족경향과 경제규모의 거대화는 공업생산에 필요한 각종자원의 입수를 점점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때에 자원보유국에 직접 투자하여 스스로 개발함으로써 자원의 안정적 도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4) 국제협력형동기 : 급일의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 개발 협력의 강요는 선진공업국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동기만으로서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적으나 부차적 동기로서는 중요한 것이다.

5) 관련진출형동기 : 예를 들어 자동차제조업 등 분야가 넓은 업종의 진출에 대하여는 부품산업 등 관련업종의 진출이 후속하는 것으로 특정산업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형태이다.

6) 기업력이용형동기 : 독점적기술력, 제품개발력, 풍부한 자본, 우수한 인재, 브랜드, 이미지, 세계적인 네트워크, 풍부한 경험 등이 여러가지로 결합되어서 각각의 종합적 기업력을 형성한다. 그 기업력의 활동의 장으로서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도 생각할 때에 보이는 기업진출동기, 가장 본원적인 해외진출동기이다.

7) 구조전환형동기 : 자국의 산업구조의 전환과 더불어 양업종에는 타부문으로의 전환과 나란히 하여 해외, 특히 자국보다도 경제발전이 늦은 국가로의 직접투자동기가 생긴다.

8) 미래지향형동기 : 현재에는 진출의 이점이 없으나 진출상대국의 경제성장력을 평가하여 장래에 대비하여 직접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

4)George. D. Bryson, Ptofits from Abroad, McGraw-Hill, pp.24-25.



9) 교두보형동기 : 장래의 본격적 진출에 대비하여 경영경험의 축적과 경영기반의 정비를 위해 진출하고자 하는것.

10) 정보수집형동기 : 공업선진국의 기술수준에 직접 접하든지 업계의 동향을 재빨리 간파하기 위해 진출하는 것.

11) 수출보완형동기 : 최근의 대형 플랜트 수출 등에서는 발주국측의 외환사정과 산업진흥의 이유에서 가능한 한 자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을 요구당한다. 이런 경우 상대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두는 것은 현지 생산과 현지조달에 편리하다.

12) 외국환조작형동기 : 세계적인 경제변동기에는 수출입에 관계하는 기업은 외환물의 변동으로 큰 손해를 보든지 뜻하지 않는 이익을 보든지 한다. 이러한 경우 해외에 별도의 법인으로서 자회사를 보유하면 환차손을 피하며, 그렇지 않으면 환차익을 얻기 위한 조치가 쉽다.

13) 工業用地指向形動機 :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한 공업국에서는 산업공해의 문제 등 입지난에 처할 가능성이 앞으로는 예상된다. 그래서 일부업종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위하여 외국에 투자하는 경향이 예상된다.

14) 부화뇌동형동기 : 동업 타사의 해외진출과 일반적인 경제계의 진출동향에 자극받아서 진출하는 것.

세분하여 보면 이 외에도 다종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가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동기의 몇 가지가 통합하여 투자하게 된다.

## 2)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sup>5)</sup>.

첫째, 국내부존자원이 빈약한 관계로 세계적인 자원민족주의(nationalism)에 대처하고,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주요자원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한다.

둘째,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출시장의 개척·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시장의판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직접투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 생산시설의 해외직접투자는 생산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연장시키고, 외화획득과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넷째,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해외 첨단기술을 국내로 이전시킬 수 있다.

다섯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여 국제경제협력

5)서근태, 국제경제론, 경세원, 1994, p.574.

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해외직접투자가 필요하다.

###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해외직접투자는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sup>6)</sup>.

첫째,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고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 등의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과 직접경영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직접 투자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조건으로 대부하는 경우이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넷째,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기술용역의 제공대가인 수수료 또는 로열티(royalty)를 습득할 것을 전제로 투자되고 있다.

### 4)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주체 또는 투자비율 그리고 투자기간의 장단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주체에 따라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로 구분된다. 민간투자는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대개 민간투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공공투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공투자는 대개 정부간 자금의 공여형식을 취하며 차관의 공여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투자비율에 따라 합작투자와 단독투자로 구분된다. 합작투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공동으로 해외에서 투자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가의 투자비율은 투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율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비율은 현지국가의 외자도입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에 단독투자는 거주자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이다.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지법령이 허용하고, 또 외국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단독투자의 형태를 취한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은 국제경쟁의 전략적인 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투자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을 비롯한 각종

---

6)상계서. p. 575.

수입규제를 회피하고 기존시장의 심화, 확대 및 경쟁국에 대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제3국 시장지향의 우회접근 거점을 확보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장지향적인 투자의 경우, 투자하는 기업은 기술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

#### ② 자원 및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투자

자원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하는 국가가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이다. 즉, 이 경우의 투자는 자원부족과 자원민족주의(nationalism)에 대처하면서 장기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개발수입체제를 확립하여 주요 원자재를 가공판매하거나, 주요 원자재를 개발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기도 한다. 자원빈국인 일본이 貿易入國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찌기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 자원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자원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었던 데에 기인했다는 것은 그 좋은 예 일 것이다.

#### ③ 기술의 판매 또는 획득을 위한 투자

기술지향적인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의 우수한 기술이나 경영관리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투자인데, 독일, 네덜란드 등의 회사들이 미국의 반도체생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의 투자는 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 및 기술개발에 대한 이익을 공급하고, 개량기술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

#### ④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투자

생산코스트 지향적인 투자는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써 유리한 산업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 ⑤ 기 타

이상의 4가지 투자유형 이외에도 잉여생산력에 해외진출과 기업의 재무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도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난다.

### 3.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과 戰略

#### 1) 今後의 展望과 問題點

1976年度 부터 飛躍的으로 增大한 우리나라의 海外進出은 계속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海外進出은 商品의 輸出入去來에서 建設, 水産業, 合作投資, 開發輸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分野에 걸쳐 폭 넓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우리의 海外進出을 多元化하기 위해 綜合的인 進出對策이 要望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海外進出이 本格化한 以後 거의 모든 進出이 美·日 등 先進國과 中東地域에만 偏重되어 地域的으로 過大依存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地域的比重을 是正하고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라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未開發 開途國으로의 進出을 強化해야 한다.

우리나라企業의 海外進出이 增加함에 따라 投資導入國의 經濟와 우리나라의 經濟間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各種의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 ① 國際的 摩擦의 問題

中東 등 우리나라의 海外進出企業이 集中하고 있는 地域을 中心으로, 進出企業에 대하여 投資導入國에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다. 確實히 企業의 進出主體가 私企業인 한 利潤의 追求는 當然하나 우리나라企業이 圓滑히 海外事業活動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나라들과의 協助·融화를 도모하여가는 것이 必要하게된다.

#### ② 貿易面의 問題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現地法人의 生産力이 增大하여, 우리나라에서의 輸入에 代替하는 것과 같이 第3國 市場으로의 輸出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製品과 현지에서 競合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製品의 輸出을 困難하게 할 可能性이 있다. 또한 現地法人에서의 코스트가 낮은 製品의 逆輸入이 業種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企業에 큰 影響을 미치게하는 것이 豫想된다. 이러한 무역굴절현상(trade deflection) 또는 간접무역 굴절현상(indirect trade deflection)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海外投資의 秩序있는 展開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國內의 産業構造를 圓滑히 高度化하는 것으로서 充分한 對應을 도모하여 들 必要가 있다.

#### ③ 雇用面의 問題

海外進出이 進行되는 데 따라 國內의 雇用機會가 그만큼 減少된다는 問題가 提起된다.

#### ④ 國際收支의 問題

資本收支面에서는 海外로의 投資가 投資元本, 果實送金이 고려되어야 한다. 經營收支面에서는 貿易面의 問題와 같이 逆輸入에 의한 輸入增加, 現地生産增加에 의한 輸出減少 등의 마이너스 要因, 반대로 海外投資에 따른 資本財, 原資材의 誘發輸出, 現地生産增加에 의한 韓國國內 輸入減少 등의 플러스要因 등의 問題가 提起된다.

### 2) 韓國海外直接投資前略

#### (1) 企業側面에서의 海外投資戰略

우리나라의 海外投資가 보다 活性化되고 成功的으로 推進되려면 무엇보다도 投資主體로서 企業自體의 海外投資能力 倍養이 先決課題이다. 國內企業의 國際經營能力이 충분치 못함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측면에서의 海外投資戰略을 제시한다.

#### ① 比較優位要素의 부단한 창출·공급

우리나라 海外投資 活性化의 가장 큰 저해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獨占的 優位の 不在이다. 企業特有的 獨占的 優位確保는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國內企業들은 뚜렷한 獨점적 優位요소 많지 않아

경쟁관계에 있는 現地國의 企業·現地に 진출해 있는 여타 外國投資企業들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케이브스(Caves)는 가장 중요한 독점적 우위요인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技術能力(technology), 제품차별화능력을 포함한 마케팅능력(marketing assets), 경영능력(managerial talents and skills) 등을 들고 있다. 기술적우위는 대개 막대한 연구개발활동투자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오랜 生産性的 축적된 경험에서 발생하게 된다. 마케팅능력도 뛰어난 技術과 認知度에 의해서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막대한 광고, 판매 촉진활동비의 지출에 의해 이루어진다.

선진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주로 기술 및 마케팅능력 등 기업특유의 우위요인에 근간을 두고 행해져 왔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기존시장 방어적인 投資이므로 企業特有的 독점적 우위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외진출이 많다.

우리나라 海外投資企業을 對開途國進出의 경우와 對先進國進出의 경우로 나누어 보면 우리기업이 所有하고 잇는 독점적우위부채를 보다 잘 실감할 수 있다. 개도국에 진출한 업체의 독점적 우위로는 주로 생산기술적 측면(현지국에 보다 적합한 생산기술, 작은 규모의 공장운영에 적합한 생산기술 등)과 가격경쟁증력측면, 저렴한 비용지출, 현지국의 개도국기업 선호정책 등을 들고 있어 웰즈(L.T.Wells)가 말한대로 개도국에 진출한 개발도상국 기업이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비하여 가질 수 있는 경쟁상의 우위점과 일치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진출 국내기업의 독점적 우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가능한 경쟁적 우위요인으로 국내 母企業으로부터의 저렴한 부품 공급 및 저렴한 인건비 정도를 들 수 있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최근 반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나 高率의 現地部品 使用比率(Local Contents)要求 등으로 경쟁적 우위가 거의 상실되어 가고있다.

美國에 진출한 국내 家電業界의 代表會社인 삼성전자와 금성사의 현지조립공장은 현지부품 사용의무비율의 상승과 국내 모기업의 生産費用上昇에 따른 부품조달가격인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 보다 투자환경이 유리한 멕시코로 시설을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技術水準이 상대적으로 落後되어 있고 人件費가 저렴한 地域에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국이 제공하는 각종 투자유인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우위요소가 많지 않은 국내기업들은 比較優位要素를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바 研究開發投資의 強化, 선진국으로부터의 技術習得, 國際經營能力培養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 ② 合作投資의 強化

자급조달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企業들이 海外投資 能力不足을 극복하기 위한 方法中的 하나가 外國企業과의 合作投資나 國內企業끼리의 共同投資이다. 國內企業과의 공동투자는 중소기업간에 擘소사업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과 대

기업간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최근에 국내 綜合商社와 中小業體間의 共同進出이 무척 활기를 띠고 있는 데 서로간의 약점을 보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 (表1 참조)

<표1> 合作投資形態別 長點

합작투자형태	장 점
外國企業과의 合作投資	· 현지국의 民族主義的 반발 유화 · 현지국 자본조달상의 편의나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기회를 제공 받기 쉬움 · 파트너의 원자재 구입, 노동력알선, 마케팅 능력 및 對現地政府 관계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음
국내 중소기업체 간의 共同投資	· 부족한 國際經營能力 相互補完 · 자금부담 경감 및 투자위험분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투자	· 대기업의 國際經營能力, 資金, 情報 및 마케팅網 이용 · 중소기업의 技術이용, 투자자금 부담경감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투자초기에는 進出에 따르는 危險을 감소시키기 위해 능력 있는 현지 파트너와 合作投資함으로써 原資材, 勞動力, 마케팅능력, 유통기구, 원만한 對現地國關係 등을 확보하여 국제경영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單獨投資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미비, 정보의 불충분, 자본부족 등의 問題點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 綜合商社 및 大企業과 중소기업들간의 공동진출로 상호 보완성을 높여야 한다.

### ③ 危險對應方案의 강구

海外直接投資는 國內와는 다른 새로운 環境下에서 技術, 財貨, 資本 및 人的 經營資原이 모두 패키지로 이동하여 事業活動을 수행하기 때문에 現地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문제와 당면하여야 하며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政治, 經濟, 社會 및 文化的 危險이 發生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海外投資企業이 고려하여야 할 危險은 事業推進段階別로 投資決定前과 投資實行後 그리고 실제 危險發生時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海外投資 決定前에는 먼저 투자대상지역의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여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投資進出方法도 危險을 고려하여 合作投資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合作投資는 전술한 대로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국내 중소기업간의 집단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현지경영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합작 파트너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기업간 제휴 등을 통하여 事業의 안정과 투자금의 조기회수 등의 전략을 미리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규모를 축소하여 적은 규모에서 시작하는 방

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合作投資 契約書의 作成도 매우 중요한 데 미리 서로간의 권리, 의무사항을 분명히함으로써 추후 發生可能한 問題를 미리 예방하도록 힘써야 한다. 한편 投資計劃 수립시 海外投資保險을 적극 活用하여야 한다. ㉠ 외국정부에 의한 株式, 貸付金債權, 社債의 元金과 配當金 支給 請求權, 利子請求權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박탈 및 해외투자사업 수행상 중요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事業繼續不能·破産(收用危險), ㉡ 전쟁·혁명·내란·폭동·소란에 의한 事業繼續不能·破産(전쟁危險), ㉢ 換去來의 제한·금지·취득금의 몰수 등에 의한 투자원금 및 과실의 送金不能(送金危險)에 대처한 위험이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危險管理策으로서 해외투자보험가입이 바람직하다.

國內業體들의 해외투자 진출이 本格化됨에 따라 現地 業體업체들의 商標先登錄行爲로 投資計劃 自體가 무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철저한 商標管理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7)</sup>.

전세계 17個國에서 한국상표가 도용당했거나 해당기업보다 먼저 現地企業이 상표를 출원 또는 등록하여 국내기업이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따라서 상표문제가 투자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對外商標管理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海外投資 立案段階에서부터 最惡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海外投資撤收戰略의 수립 또한 중요하다. 企業의 海外投資撤收는 요즘과 같이 産業構造, 技術 그리고 國際政勢의 변화가 급속히 展開되는 時代에 있어 事業의 失敗 또는 後退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적극적 經營戰略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인식되어야 한다. 海外投資 企業이 직면하는 상업적 위험 (현지국내 시장경쟁조건의 악화, 생산조건의 악화 등) 과 컨트리리스크 (국유화, 혁명이나 전쟁의 발발, 외자유제의 강화, 외채위기발생 등) 등은 주의깊은 관찰을 통해 事前 豫測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企業은 우발사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海外投資 企業이 現地國에서 경쟁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獨占技術에 대한 現地露出防止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계획한 성급한 해외투자는 자칫 기술만 이전시키고 철수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

최근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海外投資가 先進國中心으로부터 東南亞, 中國, 中南美 등 政治적으로 위험이 높은 國家에 집중됨에 따라 政治的 危險에 대한 對應戰略 樹立이 요구되고 있다. 政治的 危險에 대처하는 것은 정치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사전 진단할 뿐 아니라 정치적 위험에 대비한 사전전략 (정치적 중립의 유지, 비상관리 계획 수립, 기업의 이미지 제고, 투자국 경제에 기여 등)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정치적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나 중국 등 공산권국가에 대한 보험가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同 國家에 진출할 경우에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해외투자의 전단계인 임가공수입 등을 적

7)중앙경제신문 1989.9.30.

국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投資가 實行된 후에는 環境變化에 따라서 投資戰略을 적절히 수정하고 변경해나가고 投資企業의 이윤추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지국의 政府目標과 경제적·사회적 기여로 현지국 정부 및 現地利害關係者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危險이 실제로 發生하였을 때에는 現地國 政府와의 유리한 協商을 위하여 協商能力 및 새로운 協商方法을 개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效果的인 청산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本國政府 및 유관 外國企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協商을 위하여 필요하다.

〈표2〉 段階別 危險管理方案

<p>海外投資 決定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投資對象地域에 대한 철저한 環境分析 및 사업타당성분석</li> <li>• 危機分析 戰略(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국내 중소기업간 집단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한 위험분산, 신중한 合作 파트너의 선택, 국제기업간 제휴 등)</li> <li>• 合作投資時 명확한 권리, 의무사항 문서화로 추후 발생가능한 문제예방</li> <li>• 海外投資保險의 적극적 活用</li> <li>• 현지국기업의 先出願 예방</li> <li>• 정치적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li> <li>• 철수전략의 사전수립</li> <li>• 기술노출방지 전략강구</li> </ul>
<p>投資 實行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에 따른 投資戰略의 적절한 변경</li> <li>• 現地國의 경제, 사회에 대한 기여로 現地國 政府 및 現地 利害關係者들과의 마찰 최소화</li> </ul>
<p>危險 發生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地國政府와의 유리한 協商을 위하여 협상능력 및 새롭고 효과적인 清算方法의 강구</li> <li>• 本國政府 및 유관 外國企業들과의 공조체제 유지</li> </ul>

④ 現物, 現地金融, 海外證券 및 해외본드발행의 利用擴大

우리나라 海外投資企業들을 大部分 자금난을 겪고 있다. 商工會議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現地企業의 당면문제점으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현지시장 개혁의 어려움에 이어 2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製造業에 한정해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해외투자시의 자금조달뿐 아니라 현지기업의 운영중에 부족한 재원을 낮은 자본이용으로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것은 현지사업의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sup>8)</sup>.

해외투자기업의 자금조달은 크게 현지법인자체의 내부자금원 (유보이익, 감가상각

8) 상공회의소,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실태분석 및 애로점 조사. 1987.6.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렵다. 라는 항목에 55.2%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여타 다른 항목보다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액 등), 국내 모기업으로부터의 자금 (모기업의 채무보증을 통한 현지법인 차입, 자본출자, 현금대출 등), 현지상업은행을 통한 운영자금 차입 그리고 유로시장 차입 및 현지직접금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3> 해외투자기업의 자금 조달원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기업자금 (자본출자, 현지대출, 채무보증)</li> <li>•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상업은행 및 일반 외국환은행 등의 해외투자지원 자금</li> <li>• 모기업의 현물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증권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 CB)</li> <li>-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s : BW)</li> </ul> </li> <li>• 해외본드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ro CP (Euro commercial paper)</li> <li>- 변동금리부사채 (floating rate note : FRN)</li> <li>- 미국상업어음 (US commercial paper)</li> </ul> </li> <li>• 현지금융 (현지대출)</li> <li>• Mortgage를 통한 자산매입자금 조달</li> <li>• Venture Captial을 이용한 자금조달</li> </ul>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시 현물투자비율은 1984년말 2.6%에서 1987년말 1.3%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1988년 투자액 중에서는 0.3%에 불과하다. 그러나 1987년에는 특히 해외증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활발하였데 1987년 투자액 212,919천달러 중에서 121,511천 달러가 해외증권을 통한 자금조달로서 그 비율이 30.6%에 달하였다. 1988년에는 해외증권을 통한 자금조달비율이 18.5%로 떨어졌으나 향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내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증권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은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실적을 보면 1985년 삼성전자가 유로금융시장에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한 이래 현재까지 대형제조업체를 중심으로 6개 기업이 해외전환사채(convertible bond)를 발행하였고 1개 기업이 해외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였는데 유로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전망에 힘입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들어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1989년 11월 중순 첨단 기자재 및 대규모장치산업 기자재 수입 등의 용도에 대하여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허용하여서 해외증권발행 국내기업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sup>9)</sup>.

(표4)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실적  
(단위 : 백만달러)

발 행 회 사	형 태	규 모	발 행 년 도

9) 지동현, 임동성, '해외투자사업의 자금조달과 운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1989.12.

삼성전자	CB	20	1985
대우중공업	CB	40	1986
유성공사	CB	20	1986
금성사	CB	30	1987
새한미디	CB	30	1988
삼미특수강	BW	50	1989
서전통	CB	30	1989
동아전자	CB	50	1990
삼성전자	BW	75	1990
삼익악기	CB	30	1990
현대자동차	BW	70	1990

국내기업에 의한 해외증권발행외에도 유로 CP, 변동금리부사채(FRN) 그리고 USCP 발행사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발행조건이 엄격하여 발행가능업체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 밖에 현지국에서의 상업은행 단기대출, Mortgage를 통한 부동산매입자금 조달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조달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상당한 자금이 비기술집약산업으로 투자되기 시작하여서 고가의류 제조업체, 교육용완구 유통회사 등으로 투자를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現地金融, 海外證券發行 및 해외본드발행은 주로 大企業에 해당되는 자금조달원으로 中小企業의 資金調達은 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韓國輸出入銀行은 現地法人의 事業資金 貸出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므로 同 制度가 시행되면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⑤ 유능한 國際經營專門家の 養成 및 投資情報蒐集・分析能力強化

製造業의 海外事業에는 단순한 販賣뿐 아니라 生産, 財務, 人事 등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제조기술 및 업무지식에 능통한 능력있는 인재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國際化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육성은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企業은 스스로 有望人才를 선정하고 현지사업에서 필요한 制度, 慣行, 文化, 歷史, 地理 등 폭넓은 지식을 體得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海外投資情報를 수집하여 分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바 필요하다면 國內의 投資諮問機關을 活用함이 바람직하다. 國內에서는 韓國輸出入銀行, 産業研究院, 大韓貿易振興公社, 中小企業振興公團 등 국내전문기관과 外國投資銀行의 國內지점, 각국 대사관 뿐 아니라 外國의 유수한 투자자문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國內 大企業에 의하여 수집된 現地情報를 입수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現地公館이나 현지의 학계 또는 政界의 유력인사를 통한 정보입수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하튼 國內企業들은 情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投資의 成敗를 左右한다는 信念下에 정보수집비용을 증액시켜야 할 것이다.

#### 2) 政府側面에서의 海外投資政策方向

### (1) 海外投資 自由化의 단계적 推進

우리나라 政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國際市場與件의 변화와 더불어 중전의 엄격했던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79년을 고비로 급속히 냉각하기 시작한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와 그에 따른 新保護貿易主義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輸出方式으로 貿易障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해외투자 허가기준 등을 완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해외투자 자유화의 첫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1980年 以後, 政府는 수차례에 걸쳐 海外投資許可制度를 간소화하고 海外投資에 대한 要件, 投資事業 要件을 완화하였다. 海外投資도 企業의 經濟活動의 일환이므로 政府의 介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市長機能을 阻害하게 된다. 따라서 海外投資의 全面 自由化를 추진하여 企業의 自律的인 意思決定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모든 海外投資를 기업자율에 맡기기에는 다음과 같이 國內與件이 미성숙되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國際收支는 최근 그 赤字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國際收支 黑字時代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外換管理側面에서의 海外投資 선별 허가정책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海外投資企業들의 國際經營能力 未熟과 現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문제점 (過當進出, 過當競爭 등)도 海外投資自由化의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잘못된 海外投資는 국내 大量失業을 誘發시킬 뿐 아니라 製造技術의 海外 初期流出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시장을 잠식당할 우려도 높다. 이러한 부메랑 효과 이외에 海外資產逃避의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으므로 海外資產自由化는 諸般與件이 成熟되는데로 段階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政府는 海外投資의 단계적 自由化計劃을 미리 樹立하여 海外投資 許可限度額 및 海外投資 許可要件의 完全撤廢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國內産業에의 長.短期 波及效果를 考慮한 制度運營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進出은 장기적인 觀點에서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과 現地에서의 過當競爭 誘發可能性을 충분히 고려한 후 수행되어야 한다. 製造業의 海外投資는 産業空洞化現象을 惹起시킬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으로는 失業의 增加, 輸出의 減少 등 國民經濟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된다. 産業空洞化의 우려는 신발산업, 섬유업 그리고 완구업 같은 勞動集約産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신발산업은 인도네시아에 12개 업체, 태국 2개 업체 등 세계 7개국에 21개업체가 投資許可를 획득하였거나 투자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國內業體의 1/3以上이 海外로 이전될 可能性이 높다. 예를 들어 신발업체의 海外投資로 인한 失業問題가 아직까지는 심각한 문제로 浮現되고 있지 않지만 現在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釜山經濟에서 35~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발산업의 空洞化와 釜山地域의 大量失業問題가 發生할 것이다. 국내 섬유산업도 인도네시아(24건)를 비롯한 아시아에 41건, 과테말라(15건), 코스타리카

(7건) 파나마(7건)등을 비롯한 중남미지역 42건 등 전세계 23개국에 113개 업체가 許可를 取得하였거나 투자하고 있다. 섬유업체의 海外進出은 지난 1985년까지 8개사에 불과하였으나 86년부터 크게 增加하였으며 現在 더욱 加速化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섬유업의 대거 해외진출에 따른 空洞化와 실업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완구업체도 태국(7건), 인도네시아(4건), 중국(3건)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24개업체가 허가를 획득하였거나 투자하였다. 이 중 20개업체가 1988~89년에 투자허가를 획득한 것이어서 이 부문 역시 대량 해외진출에 따른 공동화와 실업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産業空洞化와 失業問題를 막기 위하여 海外投資를 規制하고 막아야 할 것인가 하는 政策的 問題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 산업공동화와 실업문제는 海外進出으로 인해 露出되는 문제점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밖에 國內 간류업체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국내산업의 早期 沒落可能性, 현지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경쟁, 인력스카우트 등의 부작용,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投資進出 등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露出되고 있다.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가장 높은 신발산업의 경우 海外進出反對事由를 보면 業界에서 해외투자를 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企業體 및 關聯業者들이 해외진출을 反對하고 있다, 그 事由를 보면 다음과 같다.

- 國內 自救努力이 未洽한 상태에서 해외진출은 海外逃避에 불과하다.
- 국내업체들은 勞動生産性 向上, 施設科學化로 賃金引上分을 吸收하고 해외진출 대신 素材 및 部品開發,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技術開發로 産業高度化를 피하여야 한다. 국내 신발업체 대부분이 OEM生産이고 OEM下에서의 해외진출은 成功보다 失敗한 경우가 더 많다.
- 국내 실업자를 남겨 둔 채 기업가의 이윤획득을 위하여 해외진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反撥과社會的 物議를 일으키는 등 기업가의 倫理的 次元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국내 기업인들의 自重이 필요하다. 외국 바이어의 價格引下를 목적으로 한 해외진출 煽動에 휩쓸리거나 다른 업체가 나간다고 해서 緻密한 情報나 計劃 없이 나가는 식의 진출은 자제하여야 한다.
- 신발업체의 동남아 대거진출로 進出業體와 국내 간류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여질 것이고 저임을 이용한 低價製品이 가격경쟁에서 有利하므로 수출시장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더구나 해외 低賃金國에 製靴 및 相關산업의 技術을 移轉하면 국내 신발산업의 발전은 끝난 것과 다를없다.
- 신발 低價品은 경쟁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지만 동남아 현지생산의 경우 原資材의 97% 이상을 한국에서 공급해야 되므로 그 附帶費用을 감안한다면 증상품 이상에서 國內生産製品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原副資材 相關업체 등이 현지에 진출하게 되면 價格競爭力, 納期 등이 유리해져 한국업체에 큰 打擊을 줄 것이므로 副資材 生産業體의 현지진출은 적극 抑制되어야 한다.
- 特定地域의 過當進出로 價格競爭, 인력스카우트, 노동법 및 投資誘致政策的 變更,

취터실시 등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低級製品 및 技術은 해외로 이전하고 高級製品 및 고급기술은 留保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급제품·기술의 이전자체가 실현성이 없다.

해외투자에 관한 업계의 反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産業分擔 및 分業을 위해서도 低附加價值製品 및 그 제조기술은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약화될 산업이 효율적으로 해외에 이전되든가 國際下請, 現地組立 등 생산의 국제화전략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종국적으로 그 산업자체가 완전히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여 더 큰 실업을 自招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向後 海外投資는 低級製品 및 技術의 海外移轉을 적극 推進하되 국내에서는 보다 고도의 기술을 導入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적극 移行하여야 한다. 즉, 공정개선과 자동화추진으로 원가를 절감시키고 소재개발,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등 高度化에 힘써야 한다. 海外投資는 원가절감이 불가능한 부문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高級製品 및 技術의 海外移轉을 억제하고 海外 特定地域으로의 과당진출 및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組合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組合이 問題가 있는 業種마다 구성되도록 독려하고 育成하여야 할 것이며 韓國銀行의 許可 및 事後管理制度, 韓國輸出入銀行의 各種 支援制度의 운영시에 業界 및 組合의 意見을 반영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海外投資를 規制하여야 하며 반대로 바람직한 投資進出은 적극 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 (3) 國內企業의 技術水準 高度化 積極支援

國內企業의 獨占的 優位不在는 이미 指摘한 바 있다. 우리나라 海外投資의 성공조건은 모든 여건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여하히 製品開發 및 生産工程을 위한 技術力 및 마케팅能力 같은 獨占的 優位要素를 確保, 提高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독점적 우위요소 확보가 企業次元에서 필수적이고 불가결의 것이라면 政府次元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技術習得形 海外進出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要件의 완화와 지원이 요구된다. 국내기업의 보유기술은 先進技術이 아닌 中位技術이므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해외로 이전될 수 밖에 없다.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本國에서의 지속적인 技術革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技術習得을 위한 對先進國 投資進出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므로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 (4) 中小企業의 健實한 海外投資 誘導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海外投資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産業構造調整이 원화切上 및 賃金上昇으로 加速化되었고 이 과정에서 大企業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가 더욱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개방 및 외국기업의 國內進出러시도 중소기업의 海外投資 유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대상국은 東南亞地域이 가장 많고 中南美, 中國 등 後進國에 생산효율추구형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향후에도 國內中小企業의 후발개도국 및 特殊地域(동구권국가, 중국, 베트남 등) 進出이 크게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들 地域이 先進國과는 달리 상당한 政治的 危險을 內在하는 지역이어서 이들 기업이 독특한 企業特有的 獨점적 優위 없이 경쟁적으로 海外進出리서를 이룰 경우, 상당한 投資危險이 뒤따르게 된다. 海外投資의 失敗는 企業自體의 損失이며 더 나아가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의 필요 이상의 진출은 자칫 產業空洞化의 위험과 失業問題를 야기할 수 있으며 現地에서의 잦은 철수는 우리나라 企業 이미지를 손상시킬 위험도 적지 않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海外投資를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며 이 方案 중의 하나로 정치적 위험이 높은 국가로의 海外進出시에도 海外投資保險에 補助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보험의 제도개선을 서두르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5) 政府間協定の 締結擴大

國內企業이 安心하고 투자할 수 있는 海外投資與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政府는 投資保障協定 및 二重課稅防止協定の 체결국 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投資保障協定은 民間企業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政府間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投資企業의 재산보호는 물론 투자상대국이 受容 및 國有化를 단행했을때 ㉠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효과적인 補償을 실시하고 ㉡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의 자유로운 本國送金을 보장하고 ㉢ 필요한 경우 企業을 대신해서 政府가 손해 등을 請求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란의 회교혁명에 따라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活潑해짐에 따라 세계 20개국과 投資保障協定을 체결하고 있다.

<표5> 投資保障協定 締結現況

구 분	국 명	
시 행 국 (17)	미 국 (60.2.1.발효)	서 독 (67.1.15.)
	스 위 스 ( 71.4.7.)	네 덜 란 드 (75.6. 1)
	튀 니 지아 (75.11.28)	영 국 (76.3. 4)
	벨 기 에 (76.9.3)	룩셈 브르크 (76.9.3)
	프 랑 스 (76.11.4)	스 리 랑 카 (80.7.15)
	세 네 갈 (85.9.2)	덴 마 크 (88. 6. 2)
	방글라데쉬 (88.10.6)	헝 가 리 (89.1.1)
	말레이시아 (89.3.31)	태 국 (89.9.30)
	폴 란 드 (90.2.2)	

서명국(2)	파키스탄 (88.5.25)	이탈리아 (89.1.10)
가서명국(1)	터키 (86.11.5)	

二重課稅防止協定은 소득발생지와 소득귀속지의 國籍이 다른 경우, 소득발생지국과 소득귀속지국의 국내 租稅體系가 상이함에 따라 동일한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양국에서 중복적으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며 또한 과세방법의 상이에 따른 脫稅可能性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한 條約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28개국과 二重課稅防止協定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投資保障協定을 체결한 國家들은 大部分 先進國으로서 우리나라에의 投資時 위험보장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향후 開發途上國 특히 政情이 불안하거나 投資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 그리고 東歐圈 國家들과 協定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二重課稅防止協定締結을 확대하여 중복과세의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6)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金融, 保險, 稅制 및 情報支援 強化

이미 앞에서 상술한 것처럼 現行의 金融, 保險, 稅制 및 情報支援制度를 개선하는데 있어 政府의 주도적 役割이 필요하다. 金融에 있어서는 財源擴充, 低利, 유리한 財源確保, 現地法人에 대한 貸出制度의 조속한 시행, 金融節次의 지속적인 簡素化, 프로젝트 金融制度의 도입 검토, 海外投資融資金의 용자조건 완화 및 활성화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保險에 있어서는 부모 대상의 확대, 擔保危險의 擴大, 保險料率의 再檢討, 再保險의 導入, 中小企業 優待制度의 실시 등이 개선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稅制에 있어서는 間接外國稅額控除制度 導入, 外國 納付稅額 控除限度 超過額에 대한 移越 또는 손금산입 허용, 租稅延期制度의 導入, 海外投資損失準備金 積立 및 換入기간의 延長 등이 요구되고 있다. 情報에 있어서는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각 관련기관의 海外投資機關의 네트워크를 構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海外投資 許可 및 事後管理 機關인 한국은행의 보다 유용하고 신속한 海外投資 許可 및 現況, 運營實態에 관한 統計資料提供이 요망되고 있다.

海外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는 投資國의 國際收支, 產業構造 그리고 雇傭效果面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며 海外直接投資로 인한 資本流出은 資本去來의 支出項目에 計上되어 國際收支를 惡化시키지만, 過去의 海外直接投資에서 얻어진 利子, 配當, 로열티 (royalty) 등의 投資收益은 貿易外收支의 수취항목에 計上되어 國際收支를 改善한다. 한편 海外直接投資에 따른 機械設備, 中間財 등의 誘發輸出 增加와 國內投資의 減少에 따른 原資材 輸入減少의 結果로 貿易收支는 改善된다. 그러나 제3국에 대한 輸出機會의 減少 등 輸出轉換과 逆輸入은 貿易收支의 惡化를 招來하는 國際收支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海外直接投資에 따라 일어나는 輸出入變動과 國內投資의 變動은 產業構造

에 影響을 미친다. 예컨대 生産코스트 指向的인 海外直接投資는 投資國의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寄與한다. 그러나 輸出指向的인 海外直接投資는 오히려 自國産業의 跛行性을 助長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輸出轉換, 逆輸入 또는 海外投資로 인한 國內投資의 減少는 그만큼 당해 産業分野의 沈滯를 가져오지만 誘發輸出에 따르는 産業分野는 오히려 活氣를 띠게 되는 産業救助에 미치는 效果로 파악되며 이는 다시 國內 雇傭面에 그대로 波及된다. 海外直接投資에 따르는 國內投資의 減少와 輸出轉換 및 逆輸入이 일어나는 産業部門의 雇傭은 減少된다. 그러나 誘發輸出이 産業部門에서는 雇傭擴大의 效果에 影響을 미친다.

#### 4. 結 言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FDI)경험은 이미 30여년 넘도록 축적되었으며 그 투자규모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나, 투자패턴과 현지경영의 방식은 그다지 변화하지 못한채 소망스럽지 못한 의미에서의 撤收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FDI당사자인 기업이나 행정부는 이에 대처하는 템포가 적절하지 못하여 이대로 더 지체하다가 급기야 FDI기업의 막대한 손실 또는 大量撤收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국내고용시장의 不安定이 問題化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90년대의 중반기를 目前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國際化에 따른 無限競爭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비하여 모든 部門에서의 再檢討가 時急하다고 여겨진다. 投資國의 선정에 따른 再點檢,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市場擴大可能性의 有無, 새로운 경쟁산업 또는 경쟁기업의 출현여부, 投資할 당시보다는 높은 단계로의 기술수준 상승여부, 收益의 長期的 安定性 확보 가능성, 第三國으로의 발전적 移轉을 위한 의도적 철수 검토, 現地生産品目的 적정성과 규모의 변화 가능성, R&D의 活性化 정도 등은 FDI가 조속히 점검해야 할 기본적 要素들이다.

따라서 FDI기업은 자체적으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戰略的 계획의 수립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主務行政當局은 광범위한 정보의 확보·제공과 認許可業務의 간소화 및 적시적정의 지원으로 그 시스템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절실한 것은 南北韓의 經濟協力強化를 통한 한반도 單一化 경제권의 형성 및 상호보완과 경제규모의 확대를 통한 國際競爭力 強化라 하겠다. 이에 예상되는 企業의 損失은 정부가 그 填補對策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個別企業間 또는 産業間的 구체적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은 기업 또는 산업 자체가 行政當局과의 共助로 타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北韓에서 確定한 羅津·先鋒地區 工業地帶化計劃에



南韓의 企業이 日本과 中國을 앞서 主導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크다. 經濟的 論理나 收益性的 論理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民族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기초단계로 여겨야 할 것이다. 설혹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는 統一費用으로 甘受하고 國民에게 均分하는 方案을 강구함과 아울러, 이제는 企業이 統一의 先導者가 된다는 차원 높은 企業經營哲學이 FDI業界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인준, 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1988.2.
2. 金正洪, 우리나라 玩具産業의 實態와 發展方向, 産業研究院, 1989.5.
3. 文衡基, 李 九, 主要國의 對美 製造業直接投資 및 戰略의 比較分析, 産業研究院, 1988.4.
4. 朴起舜, '國內企業의 海外投資促進을 위한 國際租稅 改善方向',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제 406호, 1989.2.28.
5. 朴炳奎, '主要國의 M&A 現況과 金融機關의 M&A 仲介事業', 한국의환은행, 外換銀行月報, 1989.4.
6. 朴相熙, 우리나라 海外投資保險制度의 效率의 運營方案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院, 1989.6.
7. 朴熙天 外 4人, 우리나라 半導體産業의 現況과 育成, 産業研究院, 1987.7.
8. 慎鏞大 外 2人, 우리나라 海外投資의 活性化 方案, 한국의환은행, 外換銀行月報, 1989.3.
9. 손병해, 경제통합론, 법문사, 1992.9.
10. 서근태, 국제경제론, 경세원, 1994.2.
11. 申浚祥, '美·加 自由貿易協定の 意義와 美國의 通商戰略', 한국의환은행, 外換銀行月報, 1989.3.
12. 李錫基, 東歐 諸國의 최근 合作投資制度 改革 動向, 産業研究院, 共產圈經濟, 제 2권 제 2호, 1989.6.
13. 林東聖, 海外進出戰略으로서의 引受·合併(Mergers & Acquisitions)의 활용, 韓國輸出入銀行 1989.10.
14. 全龍昱, 國際化 時代의 海外投資 戰略, 産業研究院, 1989.11.
15. 趙東成, 國際經營學, 서울:經文社, 1985.7.
16. 韓馥相, '東西間 産業協力과 合作投資의 增大', 産業研究院, 共產圈經濟, 創刊號 1988.6.
17. 國稅廳, 企業의 海外活動과 稅務, 1989.8.
18. 대우증권, 成長産業展望과 企業經營戰略, 1988.12.
19. \_\_\_\_\_, '日本 自動車 메이커의 北美現地生産' 調査月報 제 53호, 1989.8.
20. 大韓貿易振興公社, 中小企業의 海外投資戰略, 1989.5.31.
21. 大韓商工會議所, 國內企業의 海外直接投資 實態分析 및 애로점 調査, 1987.6.
22. \_\_\_\_\_, 對中國 直接投資 可能性 分析, 1989.6.
23. \_\_\_\_\_, 轉換期의 産業調整方向, 1989.11.
24. \_\_\_\_\_, 海外經濟研究센터, 元貨切上에 대한 企業의 對應戰略, 1989.3.
25. \_\_\_\_\_, 海外進出企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研究, 1987.12.

26. 産業研究院, 内外與件變化와 麓製 玩具産業, 1988.10.
27. \_\_\_\_\_, 신발産業의 國內外與件變化와 그 影響, 1988.10.
28. \_\_\_\_\_, 貿易政策室, 우루과이라운드, 1988.3.
29. 서울國際컨설팅株式會社,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對象事業의 效率的 選定方案, 1989.1.
30.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韓國의 海外直接投資方向 및 支援方案, 1989.12.
31. 財務部, 韓國의 海外投資, 1988.5.
32.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유휴설비 해외이전 지원사업 안내, 1989.3.
33. 尖端技術産業發展審議會, 産業研究院, 産業構造高度화와尖端技術産業, 1989.10.
34. 韓國貿易協會, 國內企業의 海外投資實態와展望, 1982.11.
35. \_\_\_\_\_, EC市場統合進展狀況 및 投資現況, 1989.8.
36. 韓國産業銀行, 海外投資 支援案内, 1989.
37.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해외투자통계연보, 1989.
38. \_\_\_\_\_,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1988.12.31., 1989.6.30.
39. \_\_\_\_\_, 해외투자현황, 1987.12.31.
40. 韓國輸出入銀行, 企業經營환경과 海外投資전략, 1988.6.23.
41. \_\_\_\_\_, 海外投資 支援制度, 1989.
42. \_\_\_\_\_, 海外投資 許可 및 申告受理 業務取扱 指針, 1989.3.
43. \_\_\_\_\_, 海外 資活性化方案, 1987.5.20. 심포지움 資料
44. \_\_\_\_\_, EC市場統合에 대한 主要國의 視角과 우리의 對應方案, 1989.11.
45. \_\_\_\_\_, 經濟協力基金部, 海外投資融資資金 支援制度 (對外經濟協力基金), 1988.9.
46. \_\_\_\_\_, 해외투자연구소, 우리나라 해외투자 지원제도, 1989.9.
47. 日本貿易振興會, 世界と日本の海外直接投資, 各년호.
48. Daler, Weigel, 'Investment in LDCs: The Debate Continues',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1988, Spring.
49. Rosengren, Eric S., 'Is the United States for Sale?', New England Economic Review, Nov./Dec., 1988.
47. Wells L.T., Third World Multinationals: The Rise of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MIT Press, 1983.
48.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1987. Transactions, Dec. 1988.
49. C.A. Michalet, Banques Multinationales, Firms Multinationales et Economie Mondiale, C.R.E.S., Universite de ParisX, Nanterre, France, 1981.
50. George.D. Bryson, Profits from Abroad, McGraw-Hill.

51. Vit.Kirpalani, International Marketing, Concordia University, Random House, Inc., 1985.
52. Christopher M. Korth, International Busines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5.
53. Ansoff, Webster New Collegiate Dictionary, 1961.